

# 2021년 상반기 동남권 경제 리뷰

이글 책임연구원(glee@bnkfg.com)  
백충기 연구위원(cgbaek@bnkfg.com)

금년 상반기중 동남권 경제는 생산, 수출, 소비 등이 증가세를 시현하며 반등했다. 고용의 경우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나 부진 폭은 완화되었다.

하반기에도 상승 흐름은 지속될 전망이다. 자동차는 수출이 증가하며 호조세를 이어 나가고 조선은 LNG선, 해양플랜트 중심의 회복세가 기대된다. 화학, 기계, 석유 정제, 금속, 철강도 글로벌 수요 및 투자 확대, 전방산업 개선으로 성장하는 등 주력 산업 전반의 생산 증가세가 예상된다.

수출 및 소비는 주요국 경기회복, 소득여건 개선, 정부 지원정책 확대 등으로 견조한 증가세가 기대된다. 고용도 제조업 일자리가 늘어나고 서비스업 부진이 완화되며 개선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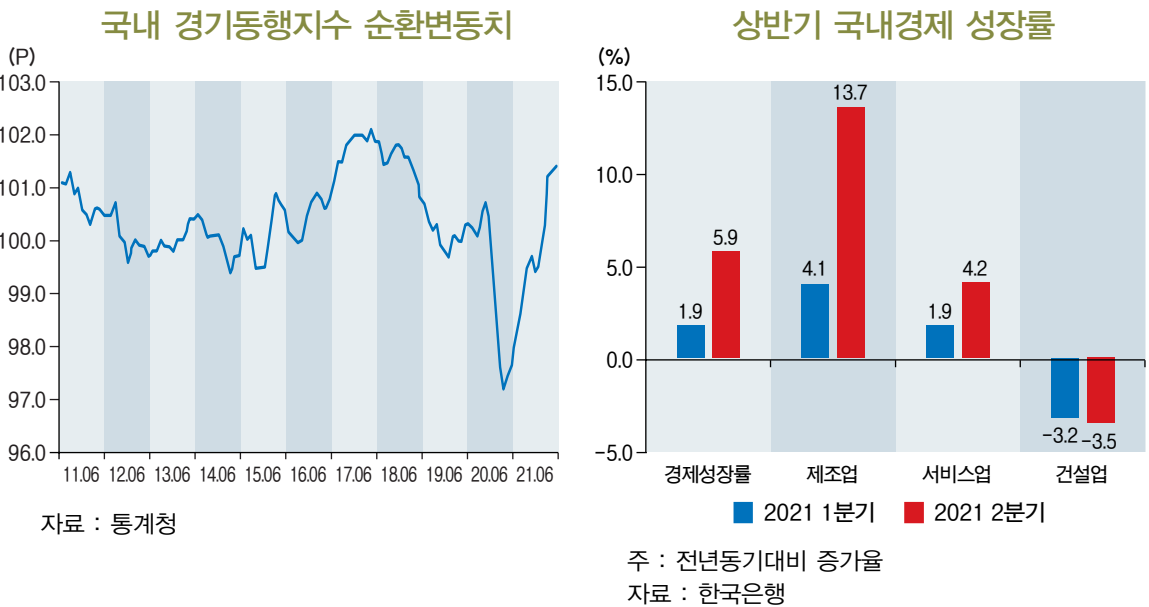
다만 글로벌 경제의 회복세 둔화가 우려된다. 상반기에는 회복세가 뚜렷했으나 델타 변이 확산,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 등에 따라 성장세가 약화될 수 있다. 이와함께 원자재 가격 상승, 미중 무역분쟁 등 하방리스크 요인에 따른 성장경로의 불확실성도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2021년 상반기 국내경제, 지난해 부진에서 빠르게 벗어나는 모습

금년 상반기중 국내경제는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에서 빠르게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sup>1)</sup>는 지난해 5월(97.2p) 저점을 기록한 이후 반등흐름을 보이면서 금년 6월 101.4p까지 상승했다.

국내 경제성장률도 전년동기대비 3.9%에 달하며 지난해 기록한 마이너스 성장세(-0.9%)에서 벗어났다.<sup>2)</sup> 제조업이 8.8%의 높은 성장률을 시현했으며 서비스업도 2.9%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설업은 -3.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sup>3)</sup>

경기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주요 전망기관들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한국은행(4.0%), 한국금융연구원(4.1%), IMF(4.3%) 등은 올해 한국경제가 4% 수준의 견조한 성장세를 시현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는 연초 전망치인 3%를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sup>4)</sup>



1) 경기동행지수는 공급측면의 광공업생산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 등과 수요측면의 내수출하지수 등과 같이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됨. 이 경기동행지수에서 추세요인을 제거한 순환요인을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라고 함

2) 2021년도 상반기 국내 부문별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 민간소비 : 2.4 · 설비투자 : 12.3 · 건설투자 : -1.6 · 수출 : 13.2

3) 건설업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 0.5(20.상반기) → -3.1(20.하반기) → -3.4(21.상반기)

4)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괄호내는 전망 시점)  
· 한국은행 : 3.0(21.2월) → 4.0(21.5월) · 한국금융연구원 : 2.9(20.11월) → 4.1(21.5월) · IMF : 3.1(21.1월) → 4.3(21.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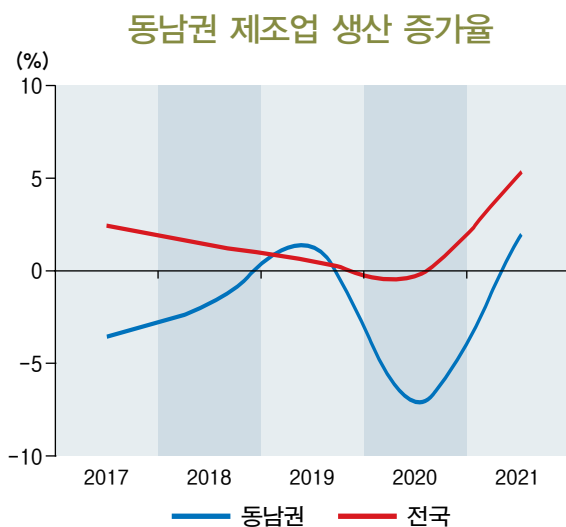
## 동남권 경제, 고용을 제외한 생산·소비·수출 반등

### ① 생산 : 글로벌 수요회복 등으로 3.4%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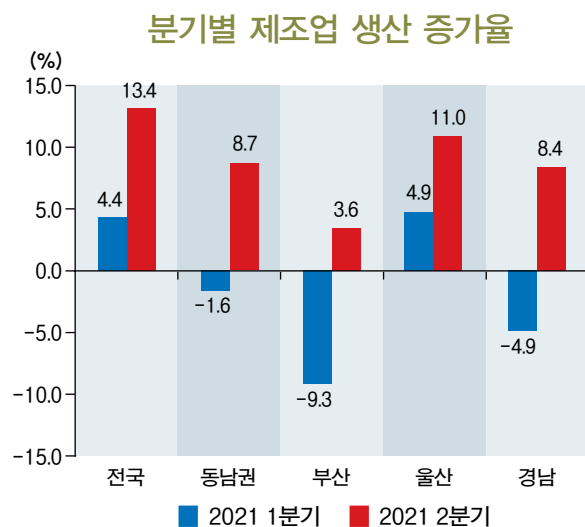
동남권 제조업 생산은 글로벌 수요 회복과 기저효과 등으로 상반기중 전년동기대비 3.4% 증가했다. 분기별로는 1분기에는 -1.6%의 감소율을 기록했으나 2분기 들어 8.7%의 높은 증가세를 시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울산과 경남이 상반기중 각각 7.9%, 1.5% 증가한 반면 부산은 -3.1%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울산과 경남은 자동차와 화학제품 호조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나 부산은 조선, 기계 등이 부진하면서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국의 경우 상반기중 8.8%의 높은 생산 증가세를 보이며 동남권과 달리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파악된다.<sup>5)</sup> 이는 최대 주력 품목인 반도체 생산이 글로벌 수요 회복 등으로 24.4% 늘어난 데 상당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



주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

5) 동남권 및 전국의 제조업 생산지수 변화 (상반기 기준, 2019년 → 2020년 → 2021년)  
· 동남권 : 92.9 → 85.2 → 88.1 · 전국 : 103.5 → 102.8 → 111.9

업종별로는 자동차, 화학, 기계의 경우 생산 증가세를 시현한 반면 조선, 석유정제, 금속, 철강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는 전년동기대비 21.6%의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내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판매 호조, 친환경차 수요 확대 등으로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으로 파악된다.<sup>6)</sup>

화학도 6.0%의 양호한 증가세를 시현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용품 및 포장재 수요 확대 등에 따라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수출이 증가한 데 기인한다.<sup>7)</sup> 기계도 글로벌 제조업황 회복, 주요국 인프라 투자확대 등의 영향으로 0.1%의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조선의 경우 상반기중 -25.7% 감소하며 하락세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수주 부진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sup>8)</sup> 이와함께 석유정제(-7.4%), 금속(-8.4%), 철강(-1.5%)도 운송연료 판매 부진, 조선 생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중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동남권 주력산업 생산 증가율

(%)

구분	2020년					2021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1분기	2분기	상반기
자동차	-11.0	-27.8	-1.2	-2.3	-10.9	15.6	28.3	21.6
조선	10.4	-10.8	-14.9	-21.8	-10.0	-30.0	-20.8	-25.7
화학	-1.9	-5.1	-6.7	-0.6	-3.6	2.3	10.1	6.0
기계	-3.1	-12.0	-6.1	-11.1	-8.3	-5.1	5.3	0.1
석유정제	1.2	-8.3	-9.3	-7.3	-6.0	-12.0	-2.5	-7.4
금속	1.8	-3.2	-9.4	-4.5	-3.9	-7.4	-9.4	-8.4
철강	-0.3	-9.7	-7.1	-4.1	-5.3	-7.3	4.5	-1.5
제조업 전체	0.3	-13.4	-3.8	-4.5	-5.5	-1.6	8.7	3.4

주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

6) 2021년도 상반기 국내 자동차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7.9% 증가했으나 내수는 -2.1% 감소(대수기준)

7) 2021년도 상반기 동남권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수출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72.2%, 65.2% 증가

8) 2020년도 국내 선박 수주량은 819만CGT로 전년(980만CGT)대비 -16.4% 감소

**② 수출 : 23.9% 증가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금년 상반기중 동남권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23.9% 증가한 624억 9천만달러를 기록했다.<sup>9)</sup>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상반기 수출액(624억 4천만달러)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울산(31.0%)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부산(29.0%), 경남(11.7%)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동남권 1~4위 수출대상국인 미국(60.0%), 중국(36.7%), 일본(12.9%), 베트남(17.7%)으로의 수출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sup>10)</sup> 대미국 수출의 경우 해양구조물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으며 대중국 수출은 석유제품과 동제품이 증가세를 이끌었다. 반면 5위 교역국인 싱가포르(-7.6%)는 선박 수출 부진 등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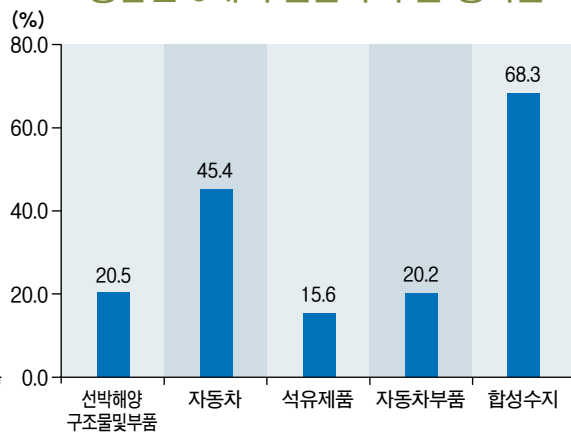
동남권 5대 수출품목도 호조세를 보였다.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20.5%), 자동차(45.4%), 석유제품(15.6%), 자동차부품(20.2%), 합성수지(68.3%) 등 1~5위 품목 모두 두 자리수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차전지 관련품목인 동제품(89.7%), 정밀화학원료(31.6%), 건전지및축전지(65.4%) 수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sup>11)</sup>

**동남권 상반기 수출액 추이**



주 : 각년도 상반기 수출액  
자료 : 한국무역협회

**동남권 5대 수출품목 수출 증가율**



주 : 2021년 상반기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한국무역협회

9) 동기간중 전국 수출액은 3,032억달러로 상반기 수출액 역대 최고치를 기록

10) 수출대상국 및 수출품목 순위는 2020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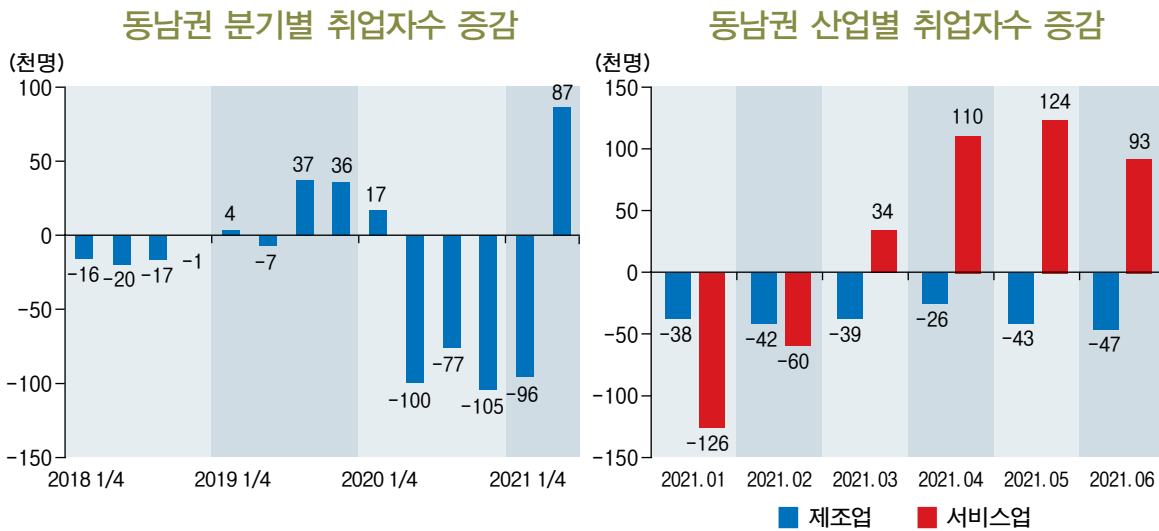
11) 2021년도 상반기 기준 동제품, 정밀화학원료, 건전지및축전지의 동남권내 수출순위는 6위, 9위, 10위

### ③ 고용 : 취업자수 감소세 지속

동남권 고용시장은 취업자수가 전년동기대비 -5천명(월평균 기준) 줄어드는 등 회복이 지연되는 모습이다.<sup>12)</sup> 지역별로는 울산(-9천명)과 경남(-7천명)이 감소했으나 부산(1만 1천명)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취업자수가 -4만명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은 2만 9천명 증가했다. 제조업은 1분기(-4만명)와 2분기(-3만 9천명) 모두 감소하며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전국은 1분기(-2만 8천명)에는 감소했으나 2분기(6천명)중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sup>13)</sup>

서비스업은 증가세를 시현했으나 상당부분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의 경우 3만 6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은 -9천명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sup>14) 15)</sup>



주 : 전년동기대비 증감(월평균 기준)  
자료 : 통계청

주 : 전년동월대비 증감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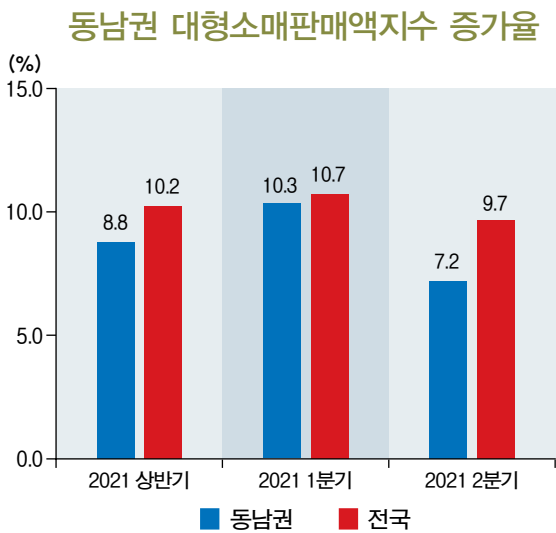
12) 전국은 동기간중 11만 9천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  
13) 종사자 지위별로는 자영업자(1만 6천명)가 증가하고 임금근로자(-1만 8천명)는 감소,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임시·일용근로자(4만명)의 경우 증가했으나 상용근로자(-5만 8천명)는 감소  
14)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의 경우 1분기(-3만 8천명)에는 감소하였으나 2분기(2만명) 증가세 시현  
15)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 수도·하수및폐기물처리·원료재생, 부동산,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 협회·단체 등

### ④ 소비 : 소비진작 정책 등에 힘입어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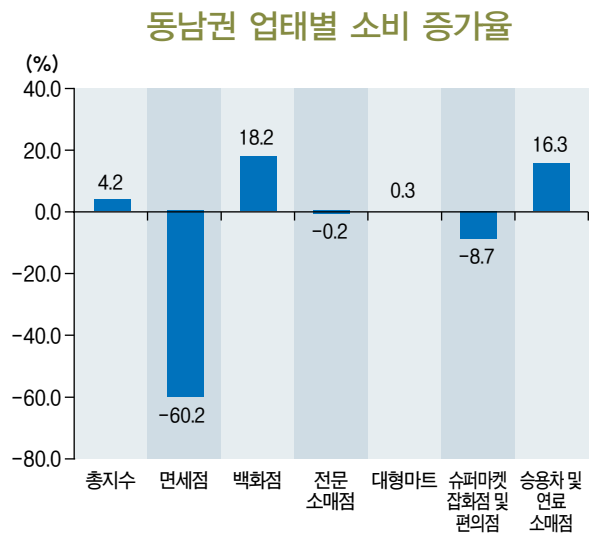
동남권 소비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정책 확대, 소비심리 개선<sup>16)</sup> 등에 힘입어 증가세를 시현했다.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의 경우 상반기중 전년동기대비 8.8% 늘어나며 지난해 부진(상반기 기준 -6.6%)에서 벗어난 것으로 파악되었다.<sup>17)</sup>

지역별로는 부산(15.0%)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다음으로 울산(3.9%), 경남(3.6%)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경우 백화점 판매 증가율(23.2%)이 울산(11.4%), 경남(8.0%)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태별로는 백화점(18.2%), 승용차·연료소매점(16.3%)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면세점(-60.2%), 슈퍼마켓·잡화점·편의점(-8.7%), 전문소매점(-0.2%), 대형마트(0.3%) 등은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였다.



주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



주 : 1) 2021년 1분기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소매판매액지수 기준  
자료 : 통계청

16) 동남권 소비자 심리지수는 2020년도 상반기 84.8p, 하반기 88.0p에서 2021년도 상반기 98.7p로 상승하여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도 상반기 수준(94.8p)을 상회

17) 판매액 기준으로 2019년 상반기 대비 5.4% 증가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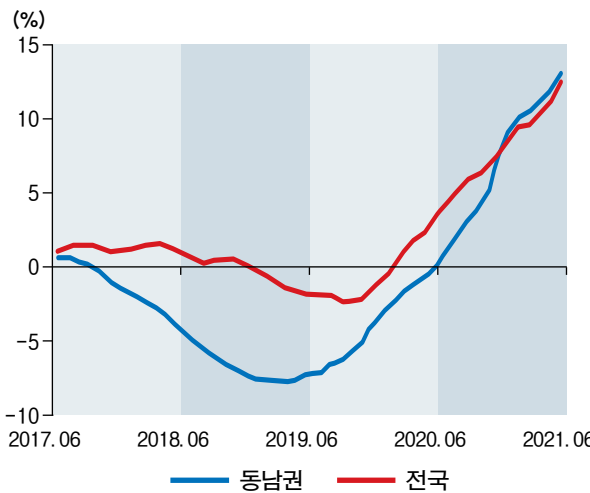
## ⑤ 부동산 : 가격 상승세 지속, 거래량 감소

동남권 아파트매매가격지수는 금년 상반기중 전년동기대비 11.0% 증가하며 상승 흐름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은 10.2%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울산(13.3%)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다음으로 부산(12.9%), 경남(6.6%) 순이었다. 울산은 남구(19.4%)와 중구(15.5%), 부산은 해운대구(23.5%)와 수영구(16.6%)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sup>18)</sup> 경남의 경우 창원(11.8%)이 개발 기대감 확산, 제조업 경기 회복 등으로 인해 최대 증가율을 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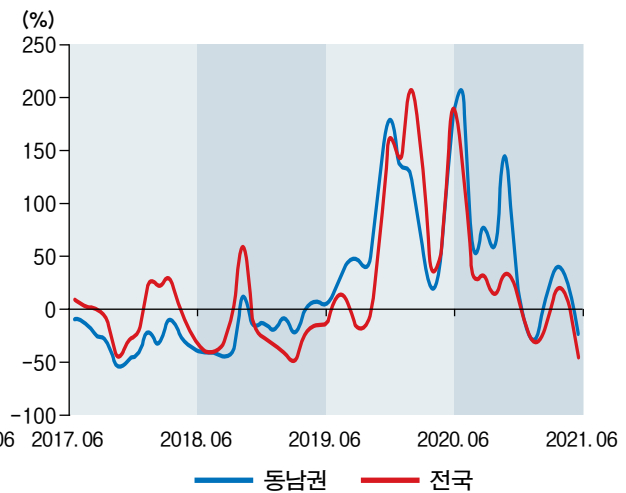
아파트매매거래량의 경우 정부 규제정책 강화, 부동산 매수심리 둔화<sup>19)</sup> 등으로 인해 -3.6% 감소하였다. 이는 경남(17.6%)의 거래량이 거제(68.2%), 진해구(15.6%) 등 조선업지역 중심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15.7%) 및 울산(-19.8%)의 거래량이 감소한 데 기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남권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증가율



주 :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

동남권 아파트매매거래량 증가율



주 :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

18) 신공항사업 영향권인 강서구(12.4%)와 관광단지 개발 중인 기장군(10.9%)도 높은 상승률 기록

19) 동남권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2020년도 상반기 113.1p에서 하반기 131.7p까지 상승하였으나 2021년도 상반기 123.5p로 하락

## 하반기 동남권 경제, 회복세를 이어나갈 전망 델타 변이 확산 등의 불확실성은 하방리스크 요인

국내 경기여건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주요국 경제회복에 따른 수출 및 투자 확대, 백신접종 확대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 등이 주요 반등 요인으로 지목된다.

동남권도 상반기중 생산, 수출, 소비 등 대부분의 지역 경기지표가 양호한 증가세를 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의 경우 감소세에서는 벗어나지 못했으나 부진 폭은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반기에도 동남권 경제는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자동차는 내수가 줄겠지만 수출이 늘어나며 호조세를 지속하고 조선은 LNG선, 해양플랜트 중심의 회복세가 기대된다. 또한 화학, 기계, 금속, 철강, 석유정제 등도 글로벌 수요 및 투자확대, 전방산업 개선으로 성장하는 등 주력산업 전반의 생산 증가세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수출 및 소비도 주요국 경기회복, 소득여건 개선, 정부 지원정책 확대 등으로 견조한 증가세가 기대된다. 또한 고용도 조선 생산 확대 효과 등으로 제조업 일자리가 늘어나고 서비스업 부진 완화, 정부 일자리 정책 지속 등의 영향으로 개선될 전망이다.<sup>20)</sup>

다만 일부에서는 미국, 유럽 등 글로벌 경제의 회복세 둔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경기 회복세가 뚜렷했으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 등에 따라 성장세가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원자재 가격 상승, 미중 무역분쟁 등도 성장을 제약하는 하방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향후 성장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20) 산업 현장에서도 경기호전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지고 있음. 부산상공회의소의 '2021년 3·4분기 부산 제조업 및 소매유통업 경기전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전망지수는 106p를 기록하는 등 2년 만에 경기판단 기준치 100p를 상회

[참고] 2021년 상반기 동남권 주요 경제지표

- 동남권 생산, 수출, 소비 등은 회복세, 고용은 감소세 지속  
수출과 소비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상반기 수준까지 회복
- 지역별로는 울산이 수출 호조 및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생산 및 수출 상승폭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

(%, 천명)

구분		전국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생산	1분기	4.4	-1.6	-9.3	4.9	-4.9
	2분기	13.4	8.7	3.6	11.0	8.4
	상반기	8.8	3.4	-3.1	7.9	1.5
수출	1분기	12.5	5.5	4.5	5.8	5.4
	2분기	42.1	48.8	59.5	66.0	20.1
	상반기	26.1	23.9	29.0	31.0	11.7
고용	1분기	-380	-96	-33	-15	-48
	2분기	618	87	55	-3	35
	상반기	119	-5	11	-9	-7
소비	1분기	10.7	10.3	15.3	7.0	2.0
	2분기	9.7	7.2	14.7	1.0	5.3
	상반기	10.2	8.8	15.0	3.9	3.9
부동산	1분기	9.1	9.9	11.0	12.7	5.7
	2분기	11.3	12.0	14.7	13.8	7.4
	상반기	10.2	11.0	12.9	13.3	6.6

주 :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고용은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취업자수 증감  
 3) 생산은 제조업생산지수, 수출은 수출금액,  
 소비는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부동산은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자료 :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 참고문헌 ]

산업연구원, “2021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2021.6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상반기 및 6월 자동차산업 월간 동향(잠정)”, 2021.7

한국개발연구원, “KDI 경제동향”, 2021.7

한국수출입은행, “해운·조선업 2021년도 1분기 동향”, 2021.4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 2021.6

\_\_\_\_\_, “경제전망보고서”, 2021.5

통계청, www.kosis.kr

한국고용정보원, www.ei.go.kr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BNK경제인사이드 발간목록

2017

01	동남권 아파트 가격 동향 및 전망
02	4차 산업혁명과 동남권 일자리
03	동남권 기업의 인도차이나반도 진출현황 및 시사점
04	글로벌 환율동향과 동남권 경제
05	원자재시장 동향 및 시사점
06	조선산업 동향 및 향후 과제
07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동남권의 미래
08	동남권 주력산업 수출동향과 전망
09	동남권 산업생태계와 향후 과제
10	인구구조 변화와 동남권의 과제
11	2018년 동남권 경제전망

2018

01	동남권 수출과 지역경제
02	동남권 자동차 부품산업 동향과 전망
03	동남권 부동산 시장 점검
04	동남권 서비스업 고용 변화
05	동남권 뿌리산업 현황 및 시사점
06	동남권 100대 기업 변화
07	동남권 기계산업 현황 및 전망
08	동남권 철강산업 현황 및 시사점
09	최근 10년간 지역금융시장 변화 분석
10	조선산업 동향 및 향후 전망
11	2019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키워드로 되돌아본 2018년 동남권 경제

2019

01	G2경제 진단 및 시사점
02	동남권 건설업 현황 및 시사점
03	동남권 자영업 현황 및 시사점

2019

04	사물인터넷 산업현황과 동남권 발전과제
05	동남권 산업단지 현황 및 발전 방안
06	동남권 강소기업 특징 및 시사점
07	2019년 상반기 동남권 경제 리뷰
08	동남권의 일본 수출입 현황 및 시사점
09	동남권 소비동향 및 시사점
10	동남권의 아세안 교류 현황 및 발전과제
11	2020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키워드로 되돌아본 2019년 동남권 경제

2020

01	2020년 동남권 수출 여건 점검
02	동남권 관광산업 현황 및 시사점
03	동남권 주요 상권의 변화 분석
04	동남권 제조업 현황 진단
05	동남권 경공업 동향 및 시사점
06	동남권 고용구조 변화와 향후 과제
07	2020년 상반기 동남권 경제 리뷰
08	뿌리산업 개편과 동남권 발전과제
09	동남권 부동산시장 동향 및 전망
10	동남권 기계산업 동향 및 시사점
11	2021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키워드로 되돌아본 2020년 동남권 경제

2021

01	2021년 동남권 수출 전망
02	동남권 신공학과 지역경제의 미래
03	글로벌 해운시장 전망과 시사점
04	환경규제가 동남권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05	동남권 자동차산업 동향과 발전과제
06	ESG 전환과 동남권 대응과제
07	2021년 상반기 동남권 경제 리뷰

**E** 이로운  
**S** 세상을  
**G** 그리다

BNK금융그룹은 ESG 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다음 세상을 그려가겠습니다!

**BNK** BNK 부산은행 BNK 경남은행 BNK 케이피탈 BNK 투자증권 BNK 저축은행  
BNK 자산운용 BNK 신용정보 BNK 시스템 BNK 벤처투자 BNK 씬농구단

**BNK** BNK금융지주

제2021-07호

신고번호 부산남, 라00006

신고일자 2016년 10월 14일

발행인 김지완

편집인 김성주

발행처 BNK금융지주 (www.bnkfg.com)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문현동)

연락처 Tel : 051-620-3180 Fax : 051-620-3199

인쇄 애드벤처

2021년 7월 30일 발행

BNK금융지주 홈페이지에서 BNK경제인사이트 뿐만 아니라  
경제 및 금융분야의 다양한 연구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